

모비스와 닮은 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업

■ (주)비엠아이(이하 ‘원청’)는 자동차 범퍼모듈과 캐리어를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직서열 업체입니다. 생산업무는 2개의 하청업체 (우진테크, 신성비앤씨, 이하 ‘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에 파견을 보내는 전형적인 불법 파견 방식입니다.

비엠아이의 전신은 2004년 현대모비스 아산플라스틱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범퍼모듈은 현대모비스 이름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합니다. 때문에 생산과 고용방식은 현대모비스 하청구조와 동일합니다.

하청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들은 2022년 2월 20일 지회 설립총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가입합니다. 현재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엠아이지회(이하 ‘지회’)에는 2개 하청 소속 76명의 조합원들이 활동중입니다. 원청에 소속된 사무관리직과 하청 신성의 대부분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산하 별도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청 “원청땀에 못해먹겠다” 3년만에 철수

■ 올해 4월경 지회 대부분이 소속된 하청업체 우진테크가 원청에 도급권 반납을 통보하면서 6월 30일부로 떠납니다. 2022년 2월 지회 설립 당시 조합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주)현대비엔디였으나, 같은 해 6월 30일부로 철수하고 새롭게 온 하청업체가 우진테크입니다. 6개월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우진테크도 3년만에 철수하는 셈입니다. 원청은 부랴부랴 다음 업체를 알아보고 있지만 새로운 업체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청의 사업철수 이유는 쌓여온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도급업무를 맡을 당시, 원청은 “일정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3년동안 지키지 않았고 하청은 버티다가 주저 않은 셈입니다. 원청은 하청에 적정한 도급비를 내려주지 않았고, 생산직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급 약속도 어겼습니다.

파견 구조는 원청의 이익을 위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 곁을 찢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다음 업체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청이 책임져라! “3승계” 투쟁 본격화

■ 지회는 하청과 2025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하청의 사업철수 의사를 확인후 더 이상 단체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월 20일 단체교섭 결렬선언을 하고 노조의 승인을 얻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원청임을 알아채고, 조정기간동안 원청에 고용보장 협약 등 조정 노력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거부하였습니다.

원청 스스로 ‘진짜 사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6월 9일 노동위원회 조정종료 결정을 통해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날 금속노조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원청에 보내 직접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 지회 조합원들의 요구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고용을 책임져라. 둘째,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승계하라. 셋째,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와라. 위 내용을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책임지고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확약하라.

지회가 금속산별노조 일정보다 일찍 쟁의권을 얻고 6월 파업에 시동을 거는 이유는 다음달 1일부터 계속 출근은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를 대하는 시각과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언제 쫓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하면 업체가 바뀌면서 사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노사간에 애써 맺어온 단체협약이 언제 휴짓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엠아이 하청노동자들이 일터와 민주노조를 동시에 지키는 투쟁, 파견노동자의 죽재를 끊어낼 싸움의 첫발을 딛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동지들의 응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